

않았었다.

Protsenko씨는 원자력이 주요 에너지원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위한 국제협력의 아이디어를 미국, 영국, 일본, 불가리아, 서독, 동독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과 상의했다고 했다. 특히 이 문제를 프랑스 원자력위원회 사무총장인 Capron씨에게 강조했는데 그는 전에 프랑스에서 금년 4월부터 실시중인 원자력 사고 평가기준에 많은 관심을 보인 일이 있으며 이 기준을 자국에서도 국내외의 사고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Comecon, IAEA와 協力

소련과 東歐圈 여러나라들은 原子力發電所 部品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계획에 國際原子力 機構(IAEA)와 共同協力키로 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모스크바에서 IAEA代表와 관련 Comecon국가들이 4일간의 회합을 갖은 후 이루어졌다.

IAEA, 에너지·電力

·原子力發電 推移를 展望

國際原子力機構(IAEA)는 21세기 초까지 原子力發電量이 과거와 같이 급신장은 아니나 꾸준한 성장을 계속할 것인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증가가 괄목할만 하다고 전망하였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05년까지의 에너지·전력·원자력발전 전망」최신판에서 1987~2005년까지 기간동안 全世界의 원자력발전량은 年平均 3.8~4.6%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 東유럽 國家를 포함한 開發途上國에서는 年平均 성장률이 7.2~8.8%로 예측돼 先進工業國의 3.4~4%에 비해 거의 2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中國

中國核工業總公司 發足

중국핵공업총공사, 中國統配炭總公社, 중국 석유천연가스총공사가 최근에 國務院(중앙정부)의 정식 인가를 얻어 설립되었다. 9월 16일 정식으로 설립된 중국핵공업총공사는 軍民結合, 공업, 상업·연구 일체화의 전국적인 전문공사로서 원자력을 축으로 다각적인 경영을 추진하여 군사기술의 민간전용 템포를 빨리해 상품생산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핵공업총공사는 舊核工業省을 모체로 설립된 전국적 전문공사로 사장은 蔣心雄(전핵공업장관), 부사장은 陳輩博(전핵공업차관), 趙宏씨(상동), 李定凡씨(상동), 黃齊陶씨(상동) 등 4명이다.

傘下에 2백여 기업, 연구·설계부문과 공사를 포함하여 법인의 지위를 갖고 자주경영과 독립채산, 손익자기부담을 실행하는 경제구성체이다.

또 동총공사는 법률에 의거하여 원자력공업의 생산, 판매, 연구, 개발 등의 기능을 가짐과 동시에 중국 에너지省的 위탁에 의해 정부의 일부 관리기능을 갖는다.

취급범위는 ①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조직과 실시, 원전의 건설과 운전의 請負 ② 방사성 광물자원의 탐사와 개발 ③ 핵연료와 우라늄제품의 생산 ④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와 원자력 안전방호 ⑤ 방사선기술의 응용과 연구 ⑥ 국제협력 ⑦ 국가 군수물자의 연구와 생산임무를 계속 수행하는 등이 포함되며, 현재 중국최초의 국산원자력발전소인 秦山 원자력발전소(浙江省, PWR 30만kW)와 廣東 원자력발전소(PWR 2基, 각 90만kW)의 건설을 맡고 있다.

그리고 국무원이 이를 위해 電送한 에너지省의 관계보고에 의하면 「이 3대 공사는 어느 것

이나 법인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주경영, 독립채산, 손익자기부담을 실시한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국무원의 기구개혁에 근거하여 舊핵공업성, 석탄공업성, 수리전력성, 석유공업성이 폐지되고, 에너지부가 신설되었으나, 이와 동시에 핵공업성, 석탄공업성, 석유공업성의 3성을 기초로 세개의 총공사를 설립했다.

또 행정·기업분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舊각관청의 행정관리 기능은 에너지부로 이관되며, 관계 작업중의 생산, 건설 및 경영관리 기능은 각기 신설한 3대공사가 행사하기로 되어 있다.

다만 3대공사는 정부부문에서 경제구성체로의 원활한 이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은 에너지부 기타 정부부문에서 권한을 받게 되며 또는 위탁받은 일부의 정부관리기능도 담당한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는 모두 부족한 상태이며 그 때문에 약 1/4의 생산능력을 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국무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에너지업계의 3대공사는 말단기업의 자주권을 한층 확대시키고, 경영기능을 끊임없이 정비하여 에너지의 발전을 경제발전의 요청에 재빨리 대응하고 있다.

中國, IAEA査察을 수용

중국은 10월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32회 국제원자력기구(IAEA)총회 석상에서 보장조치협정에 조인했다.

이에 따라 협정은 즉각 발효, 중국은 자국의 모든 민간 원자력시설에 대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일게 되었으며 미국, 소련, 중국, 프랑스, 영국 등 다섯 핵무기 보유국은 모두 자국의 비군사용 원자력시설에 대해 국제사찰을 받아들일게 되었다.

협정에는 중국대표단의 周平씨(전핵공업성차관)와 H.블릭스사무총장이 서명했다.

周平씨는 조인후 「이 결정은 중국의 독립자

주의 외교정책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중국은 핵확산에 찬성도 추진도 하지 않을 것이며 또 다른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에너지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른 주요에너지원보다도 경제적이나 환경적으로도 우수하다. 일반적으로 말해 원자력에너지의 개발은 통상의 발전소와 같이 인간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밖에 周平씨는 「중국은 최근 2년간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개발한다는 정책을 견지해 왔으나 안전제일, 품질제일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國際會議

佛 NuSAFE大會 要約

국민적 합의문제는 지난 10월초 프랑스 아비뇽에서 열린 NuSAFE 88국제원자력안전대회서도 의제로 채택되었다. 프랑스의 방사선방어/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인 Cogne씨는 그의 연설을 통해 이 문제가 앞으로 열리게 될 NuSAFE 대회에서는 반드시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에서 영국 보건안전집행부의 Rimington씨가 원자력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확률론적인 접근 방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국민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회에서 나타났듯이 열수력학과 같은 원자력안전성과 관련된 오래된 문제들은 잘 이해가 되고 있고 중대사고나 소스·팀과 같은 비교적 새로운 문제들도 잘 다루어지고 있지만 국민여론문제가 안전성과 관련된 세가지 문제중의 하나로 남아있다고 Cogne씨는 말하고 이 문제가 이번 아비뇽대회의 토론에서도 거론되